

서울중앙센터

피해자 22명 초청, 2010년도 2/4분기 지원금 전달식

스마일센터 개소 현황 소개와 함께 “많은 이용” 당부



▲지원금 전달에 앞서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서울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는 7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이용우 이사장, 고강운 위원, 오세인 중앙지검 2차장검사, 조재영 범죄피해자지원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22명을 초청하여 2/4분기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지원금은 22명에게 각 200만원씩 총 4,400만원이 전달되었으며, 전달식에 앞서 7월 1일 개소한 스마일센터 소개와 관련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달식에서 이용우 이사장은 “범죄피해자 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어 다행” 이라며 “정부로 위탁운영을 위임받은 스

마일 센터에는 성모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를 비롯한 심리치료 전문 인력이 상근하여 언제든지 상담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또한 “각종 심리치료와 더불어 여러분이 언제나 쉬어갈 수 있는 쉼터와 보금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제빵 교육을 비롯한 각종 직업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는 만큼 센터로 연락 주시면 스마일센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세인 2차장검사는 격려사를 통해서 “기금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스마일센터도 개소한 만큼 피해자 여러분들도 하루 빨리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0년 사법연수생 법률상담 봉사활동 실시

“피해 입은 분들을 직접 상담하고 도와줘 보람”



중앙센터에서는 사법연수생의 법률 지식 습득과 사회봉사 정신 함양을 위해 사법 연수원 하계 휴가기간 동안 중앙센터에서 피해자 법률상담의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법률 상담봉사는 1차 7월 19일(월)~23일(금), 2차 7월 26일(월)~30일(금) 일정으로 각각 1차 6명, 2차 10명의 연수생들이 참가했다.

봉사 활동에 참가한 사법연수생들은 피해자들의 센터 방문상담과 전화 상담 봉사활동을 마친 뒤 소감을 통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직접 상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 사법연수생들이 봉사활동에 앞서 이용우 이사장으로부터 센터 상황을 소개받고 있다.

범죄피해자 73가정에 하계휴가비 지원

노환균 검사장과 이용우 이사장 격려의 말도

중앙센터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노환균)에서는 7월 21일 범죄피해자 73가정에 총 14,600,000원의 하계 휴가비를 지원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하계 휴가비는 노환균 검사장과 이용우 이사장의 격려의 말과 함께 우편환으로 발송이 되었으며, 범죄피해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외받지 않고 일반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한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용우 이사장은 격려의 말을 통해 “모든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피해의 악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길 기대한다”며 “스스로가 마음을 추스르고 새로운 삶에 도전할 때 내 가족과 이웃에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심기일전 해 달라”고 당부한 뒤 “가족과 함께 하계휴가를 뜻 깊게 보내달라”고 말했다.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www.kcvc.net

아동 성폭력범죄 수사전문성 강화위한 세미나 개최

보호와 지원 방안 및 재발 방지·억제대책 등 논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7월 14일 성폭력 상담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아동·성폭력범죄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서울중앙지검 아동 성폭력 전담 부서인 형사 제7부 검사 및 수사관 전원, 중앙센터 이용우 이사장,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 문수연 소장 등 성폭력 전문가 3명, 관내 경찰서 강력팀장 14명 등이 참석하여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용우 이사장은 이웃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아동 피해자가 정신적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의료·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도매비 지원, 보금자리 주택 보증금 및 이사 비용을 지원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성폭력피해아동 진술을 특성 및 평가』, 『성폭력 사건 수사시 유의 사항 및 개정법률 안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 등의 이용우 이사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함께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방안, 범죄 방지 및 억제 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서울동부센터 강력사건 피해자에 300만원 지원금 전달 현재 불안증세로 스마일센터서 심리치료 중



▲이종관 이사장이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종관)는 7월 29일 청소년에 의한 집단 폭행 사망 피해자 가정과 성폭력 피해 가정에게 각각 3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집단 폭행 사건은 송파구 잠실동 먹자골목 주변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자신들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청소년 7명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병원 치료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한 피

해자가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는 가장으로 사건이후 유족들의 생계가 곤란한 것을 파악한 뒤, 유족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지원했다.

성폭력 피해 가정은 아들 내외가 집을 비운 사이 강도가 침입하여 손자를 돌보고 있던 할머니를 성폭행 한 사건으로 사건 이후 피해자는 물론 범죄를

목격한 어린이 또한 심한 대인기피증 및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으며, 거주지에서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족이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동부센터는 의료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아이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스마일센터에 의뢰하여, 현재 스마일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서울동부센터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피해자 발굴을 통해서 범죄의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지원과 치료에서 소외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사)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scvc.or.kr

“사랑의 마음을 배달합니다” 지원행사 84가정을 방문해 쌀과 감자 등 전달

서울동부센터는 지난 9월 15일 “사랑의 마음을 배달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범죄피해자 지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서울동부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가정을 방문하여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명절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84가정을 선정, 1가구당 쌀 20Kg 2

포대와 감자 1박스, 양파 1자루 등을 전달했다.

물품은 이종관 이사장, 이재원 서울동부지역 검사장을 비롯한 센터 분과위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달했으며, 지방에 거주하여 방문이 어려운 가정은 사랑의 편지와 함께 택배로 발송했다. 특히 서울동부센터 김태산 위원은 감자 100박스, 양파 100자루를 참조하여 범죄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행사전 센터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남부센터 범죄현장 정리 및 청소 봉사활동 ‘신정동 문지마 살인사건’ 등 현장서



▲원봉사자들이 피해현장을 청소하고 있다.

(사)서울남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승제)는 거주지에서 일어난 각종 강력사건에 대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범죄현장 정리 및 청소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건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일어났을 경우, 피해자들은 사건의 충격이 체 사라지기도 전에, 생활을 위해서 집에 남아있는 사건 흔적들을 스스로 정리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살인사건 등 강력 사건의 경우에는 혈흔 등 사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피해자가 직접 현장을 정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서울남부센터는 사건 현장 청소의 소요가 발생하는 현장 마다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7월과 8월에도 각각 1건씩 봉사활동을 벌인바 있다.

서울남부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정리 및 청소를 통해서 피해자가 보다 빨리 범죄의 상처를 잊고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장정리 청소 사례 1 (7월 21일)

식당 상해 사건
동업자 관계에 있던 두 남녀가 사업상 부진에 대한 말 다툼 끝에 남자가 여자를 칼로 수차례 찔러 상해를 입히고, 본인도 자해한 사건으로 사건 발생 수일이 지나고 현장이 제대로 정리 되지 못해 악취가 나서, 주민 민원이 많이 쇄도하는 상황이었음.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정리 요청이 들어와 사무처장 및 자원봉사자들이 현장 정리 및 부패된 음식물 정리 활동 등을 벌임.

■ 현장정리 청소 사례 2 (8월 7일)

신정동 ‘문지마 살인’ 사건
육탑방에서 생활하던 가정에 신원 불상의 강도가 침입하여 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하고, 부인을 망치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사건 이후 관할 경찰서의 요청으로 출동하여 사건 현장의 혈흔 및 사건 흔적을 제거하는 봉사활동을 벌임.

신정동 사건 피해가정 이사 지원

서울남부센터는 10월 5일 지난 8월 신정동에서 일어난 일명 “육탑방 문지마 살인 사건” 피해자 가정의 이사지원을 실시했다. 신정동 사건 피해 가정은 8월 15일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전격 시행으로 실

시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의 첫 번째 케이스로 LH공사의 협조 가운데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떠나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주택을 시세의 30%정도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서울

남부센터는 이사 당일 김길수 사무처장과 자원봉사위원 2명이 피해자 가정을 방문하여, 이사집 정리 및 환경정리를 도왔다.

한편 남부센터는 이날 11시 센터 사무실에서 3/4분기 구조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정동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10명의 범

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을 확정했다. 신정동 사건 피해자 가정은 이날 결정으로 생계비 300만원과 의료비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6개월간 쌀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ssvc.or.kr

서울북부센터

제3차 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범죄 피해자 14명에 대해 4,150만원 지원



▲최주봉 이사장이 지원금을 전달한 뒤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주봉)는 7월 29일 서울북부지검의 센터 사무실에서 최주봉 이사장, 신민호 담당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제 3차 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14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4,15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지원금을 전달 받은 피해자들 중에는 방법장을 훼손하고 침입한 피의자에 의해 일가족 3명이 상해를 입은 일명 '발버리 사건'의 피해자들도 있었는데, 센터에서는 가족 치료비 명목으로 1,15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금 전달식에서 최주봉 이사장은 "갑작스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피해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고 "과거는 빨리 잊어 버리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여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지원금 전달식 이후에는 센터 관계자들과 피해자 사이에 간담회를 가져,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보다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사)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snvc.or.kr

서울서부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홍보 리플릿 발간

피해자와 센터와 연결해 주는 가교역할 기대

(사)서울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갑식)는 센터의 역할을 홍보하고,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홍보 리플릿을 발간했다.

총 5페이지로 구성된 홍보 리플릿은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 소개와 더불어 범죄피해자들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 본

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서부센터는 발간한 리플릿을 지검 로비 및 민원실에 비치하여 피해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찰서와 구청 등 관련 기관에도 비치하여서 리플릿을 통한 적극적인 센터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서부센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개소한지 꽤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존재와 하는 일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에 발간한 리플릿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과 센터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플릿 전단지.

친부로부터 3년간 성폭력당한 아동 피해자 지원

심리상담 등 스마일센터와 연계 효과적인 지원 펼쳐



▲치료를 받은 아동가족이 스마일센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서부센터가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 스마일센터와 연계한 효과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서부센터는 7월 25일 용산구청으로부터 한 사건을 의뢰 받았다. 친부로부터 3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온 아동의 사례로 가해자인 친부는 구속이 되었으나, 사건 이후 어머니가 반찬가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가족의 생계를 이어온 관계로 제대로 된 심리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에 앞서서 피해자 아동이 그간의 상습적인 성폭행과 구타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며, 피해자의 남동생 또한 친부의 범행을 그대로 목격하여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한 점을 착안하여, 심리상담 및 치료와 절실하다고 파악해 스마일센터

에 의뢰하여 심리상담을 받도록 지원했다.

현재 피해자 아동과 가족은 스마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며, 입소 초기에 비해 상태가 많이 호전된 편이다.

서울서부센터 관계자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인 범죄에 비해 피해자가 받는 충격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사건 접수 초기부터 적극적인 개입으로 체계적인 치료가 우선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앞으로도 스마일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에 힘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센터는 아동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자체 분과위원회 정기 회의나 초청강연, 지자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통해 범죄 근절 및 방지 대책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